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FEBRUARY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0



2023년 플로리다 골프trip

2023년 회보 편집팀 중점 계획

덕담이라도 회원들로부터 “어려운 때에도 빠지지 않고 출간한다”, 또 “회보가 보기 깔끔하다”, 혹은 “오자가 거의 없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 편집팀이 직접 칭찬받는 것 같아 자못 긍지를 느낀다, 열심히 일해 회원들이 기대하는 회보를 잘 만들어야지 하는 에너지를 얻는다.

때없이 회보 편집방침을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새해가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추구하고 본다. 지난해에는 회원들의 사는 모습을 “회원 동정”, “사진 갤러리”로 매 회보에 잡아보았고 또 “우수원고”를 선정하여 투고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것도 이제는 제법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작년에 처음 “회보와 골든클럽 카페의 연계” 그리고 “Zoom 강의”를 시작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더 애써야 할 것 같다. 회보가 월간이고, 지면이 한정돼 있어 회원들의 오리지널 원고를 주장하지만 카페에서는 interactive 하게 소통할 수 있고 외부의 아이디어들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매체의 장점을 살려 연계하는 것이 금년 challenge중의 하나이다.

금년에 초점을 두고 추구하려는 아이디어는 “회원 탐방 인터뷰”를 한 페이지 정도의 길이로 게재해 회원의 profile을 심도있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시도했던 “Zoom 강의”를 회원들이 흥미있어 하는 주제, 연사(내부, 외부), 강의 방법(lecture, interactive)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험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의를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밖에도 소규모 동우회(바둑, 당구 ...) 모임을 활성화시켜 회원들이 자주 얼굴을 맞대고 즐기는 기회를 만들겠다.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항상 손이 모자라 고생이다. 현재 편집팀이 총 8명인데 2, 3분은 더 있어야 위의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여성 회원은 한 분인데 현대 사회의 norm에는 절대 미흡하다. 자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추천이라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항상 부탁드리지만 끊임없이 input을 주셔서 편달은 아니더라도 지도를 바란다. (편집장 윤현남)

2023년 신년교례회

새해 회원 전체가 모이는 첫 행사로 신년교례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일 장소는 Tenafly, NJ에 있는 Korean Community Center입니다.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2015년에 건립한 이 회관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층의 대연회장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으니 날짜를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3년 4월 1일 (토)

시간: 오후 4시 - 9시

회비: \$120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kim@keiusa.com

NY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편을 검토중이며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수 원고 선정

골든클럽 편집팀에서는 매년 회보에 게재된 원고 중 2편을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일반 서술 원고들만 선정된다는 의견이 있어 시, 미술, 사진들을 묶어 특수 원고 category를 만들고 1편을 더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의 선정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원고

1. “피카소와 코카콜라”
김광현(미대57) 회보 4월호
2. “손자와 함께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I, II”
오용호(의대66) 회보10,11호

특수 원고

1. “격리 해제 뉴스 듣자마자 달려간 한국”
이행순(미대60) 회보8월호

김광현 회원의 글은 현대 추상 미술과 business 제품 디자인이 서로 조합되어 일반인들의 미적 감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나름 심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쓰신 글입니다. 오용호 회원의 글은 8세의 손자 사랑과 자랑을 사파리 여행 기행문 안에 잔뜩 담아 놓은 글입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행순 회원의 글, 특히 사진들은 새시대의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줍니다. 회원 모두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수 원고 선정”에 관해 몇 마디 부칩니다. 감사 상품은 100불 가치의 H-Mart 선물권입니다. 이 외에도 금년 2월로 예정된 편집팀 점심에 초청됩니다. “우수 원고”라는 title은 조금 과장이고 실제로는 편집팀 멤버들이 뽑은 인기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정에 있어 편집위원이 기고한 원고는 배제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좋은 원고들을 기고해 주셔서 수상자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FOR THE NEXT GENERATION'S MISSION:
뉴 브론스윅크 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 모금 음악회

THE UNDERWOOD ORCHESTRA CONCERT

I. SYMPHONY NO. 4 OP.98
BY JOHANNES BRAHMS

II. HUNGARIAN RHAPSODY NO. 2
BY FRANZ LISZT

III. 양양재 황유년곡 (FULL HARVEST AT SUNGSAN FIELD)
BY YOUNG GYU KIM

CONDUCTOR & DIRECTOR
CHODAE KIM

SOPRANO
HONGJUNG HONG

MEZOSOPRANO
SUNGJUNG CHUNG

THE UNDERWOOD ORCHESTRA

SUNDAY MAR. 12, 2023 AT 7:00 PM

CHODAE COMMUNITY CHURCH
100 ROCKLAND AVE. NORWOOD, NJ
201-767-0400

TICKET: \$20
FREE ADMISSION FOR STUDENTS

INFORMATION
MR. JAY KIM 201-965-7759
YOUNG SOON MOON 848-593-0035
MS. JIA 201-982-4433

주최:
MAIN VIOLIN
523 SUMMIT AVE. FORT LEE, NJ
T.201-967-2727

VI. VIOLIN SOLO
39 HIGHWOOD AVE. TENAFLY, NJ
T.201-281-4395

MUSIC FOOD
400 SYCAM AVE. SUITE 9105A ENGLEWOOD CLIFFS, NJ
201-925-2423

3월 12일 Underwood Concert

김정필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부인 강혜미씨가 지휘하는 Underwood Orchestra가 작년에 이어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 Orchestra Concert를 3월 12일(일) 뉴저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정필 사무총장 내외와 여러 후원자들이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Underwood 세계 선교 후원을 위한 Underwood Orchestra Concert’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입장권은 일괄정리하였고, 입장시 ‘골든클럽 회원’이라고 말씀하면 골든클럽 회원 ‘별정석’으로 안내하며, 음악회가 끝나면 간단한 뒤풀이가 준비될 예정이니 참가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참석 예정 회원께서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일시: 3월 12일(일) 저녁 7시

장소: 초대 교회 대강당, 201-767-0400

100 Rockland Ave, Norwood, NJ 07648



12월 29일 광선섭 회원이 동문을 초청



권정덕 홍선경 회원의 밝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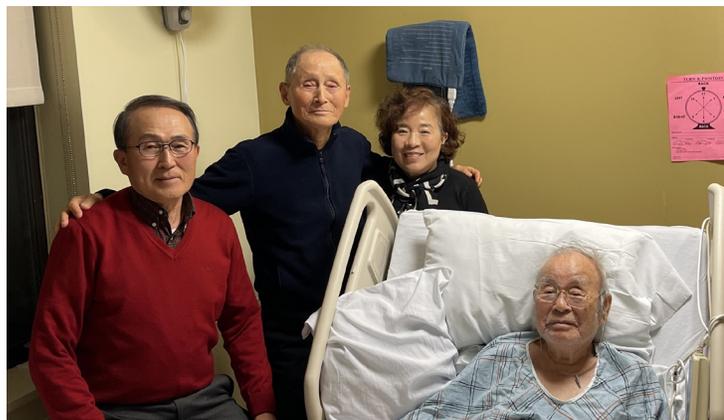
이전구 회원 82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천병수회원의 손주 자랑



아틀란타에서 한영수 광승용회원 부부와 함께



이대영 홍종만 회원 이준행 명예회장 방문안

김옥수 사모님에 의하면 **김종률 박사**는 11월 30일부터 WHITE PLAINS HOSPITAL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는 ACTIVE TREATMENTS 를 중단하고 증상치료로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HOSPICE CARE 를 받고 계십니다. 지난 19일에는 BRONX 에있는 THE CALVARY HOSPITAL로 옮기셨습니다. 몸은 많이 위축되었지만 정신은 대부분 맑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옛그제는 이준행 명예회장님과 화상통화를 하시며 골든클럽 회원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THE CALVARY HOSPITAL
1740 EASTCHESTER RD ,BRONX NY 10461

2023년 세금보고시즌을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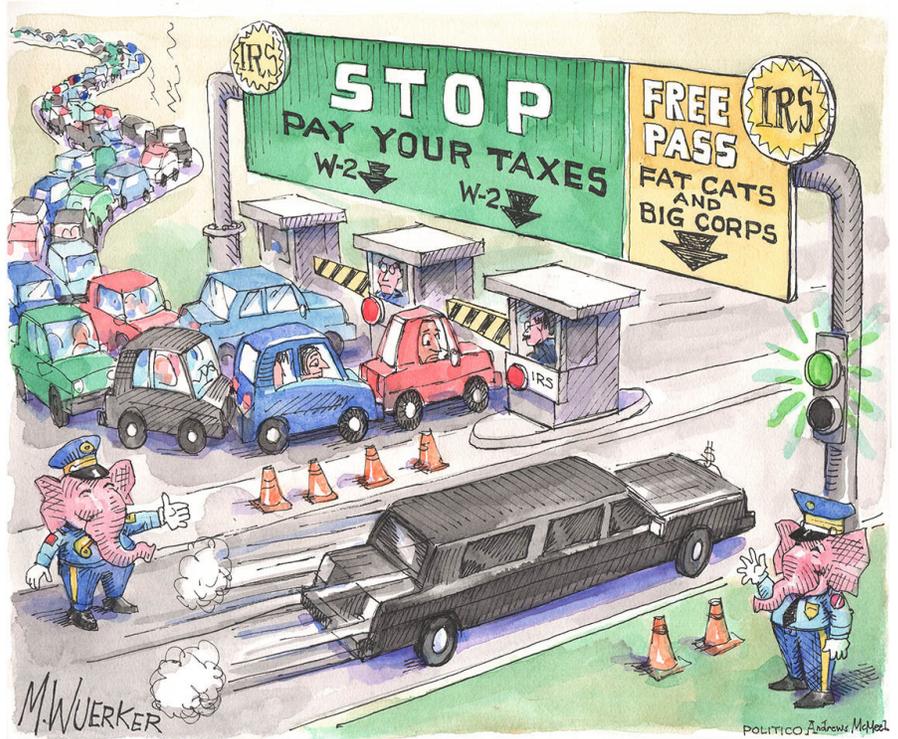
■ 김병순 (사회 82)

다시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회계사로서는 매년 돌아오는 시즌이지만 이 시즌이 되면 두려운 느낌이 엄습한다. 휴일을 포함하여 야근을 심하게 하여야 하며 개별 고객에 대하여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가져다 주는 압박감이 아주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어쩔수 없는 괴로움이라면 즐기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 가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하나 둘씩 켜지는 모습을 보면 두려운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세금보고서상 납부할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Gift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deduction or adjustment)를 하여 순 소득을 산출하고 세율을 곱하여 세금금액을 산출한 후 세액공제(credit)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금액이 산출된다. 소득공제(deduction or adjustment)에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은퇴저축, 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등이 속하고 세액공제에는 Child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학비세액공제의 하나) 등이 속하게 된다.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IRA 공제이다. IRA 저축을 \$7,000하면 세금혜택을 \$7,000 받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IRA 공제는 소득공제이기에 세금혜택은 \$7,000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refundable 과 non-refundable로 구분하며 non-refundable은 납부할 세금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refundable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적용 세법은 Pandemic으로 인하여 적용되던 2021년의 혜택이 많이 사라졌다. 자녀의 존재 자체에 혜택을 받는 Child tax credit금액이 \$3,600 or \$3,000에서 \$2,000로 감소되고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에 따른 혜택인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또한 감소되었다.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300 or \$600의 deduction을 받던 혜택도 없어졌다. EITC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등 완화된 조건 적용이 소멸되어 소득금액이 소액인 노인의 경우 납입 세금이 없음에도 refund를 받던 혜택이 없어졌다. Obamacare를 통하여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되는데 2021년에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없어졌다.



2022년에 Inflation을 감안하여 혜택이 증가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한다. Tax bracket의 금액완화로 인한 세액 감소가 있으며 Long term capital gain의 tax bracket 또한 완화되어 혜택이 증가되고 standard deduction 금액도 증가되었다. 증여/상속세의 일평생 면제금액 (lifetime gift/estate tax exemption)도 2021년 \$11.7 백만에서 \$12.06 백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전기차 세액공제 (electric vehicle tax credit)는 2023년부터 혜택을 확대하였으나 2022년 8월17일 이후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차의 최종 조립장소가 미국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어 자동차의 VIN 번호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었다.

2022년은 주식시장이 하락장세이기에 주식으로 capital gain을 얻기는 쉽지 않으리라 추정이 된다. 2020-2021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호시절을 만끽한 사람들이 2022년초에 매도를 하여 이익을 실현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capital gain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있을 것이다. 주식을 1년을 초과한 기간을 보유하고 매도한 장기 매매 이익 (long term capital gain)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1년 이하로 보유한 주식 매도에 대한 단기 매매 이익 (short term capital gain)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스러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뉴욕동창회 발자취를 뒤돌아 보며

■ 정해민(상임 고문)

지난 5-6년을 돌아켜 보면 뉴욕지역 동창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7년 40대 이대영 회장, 정해민 이사장때부터 전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창회와 골든클럽의 관계를 정립했다. 사실상 별개의 두 조직을 양측의 회칙을 개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골든클럽이 별도 법인 등록을 하는 대신 동창회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동창회의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에 골든클럽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대 음대생 출신의 유학생들로 구성된 음악회를 Queensboro Community College에서 600 여명이 참가하는 대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동창회의 자체적인 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여하는 첫걸음으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뉴저지 동포회관(KCC)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018년 41대 손대홍 회장(미대 79), 한태진 이사장(의대 58) 때에도 발전은 지속되었으며 과거 수십년간 동창회 회장을 각 단과대학이 가나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 단임하던 제도를 대학에 상관없이 동창회를 위하여 봉사할 의지가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회칙 개정을 시도하였다.

2019년 42대 회장 조상근(법69), 이사장 정해민은 순번제 회장 선임제(관례)의 폐지를 확정하면서 전대의 활기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행하게도 COVID 19 팬데믹이 불어 닥치면서 활동(모임 등)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Double Tree Hotel에서 송년회 겸 총회를 개최했고, 2020년에는 실내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므로 야외에서 총회 겸 피크닉을 하면서 장학기금 모금 등 행사를 이어 나갔다. 가장 큰 애로는 회장 1년 임기 말 까지도 차기 회장 예정자를 물색하지 못하여 회칙에 따라 부득이 조 회장이 연임하고, 2년차 임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차기 회장 물색에 나서게 되었다. 동창회 전임 회장단과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영천(약72)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뉴욕지역 단과대학 동문회 중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약대동문회가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조상근 회장은 모든 것이 정지된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와 장학기금 재정에 흑자를 냈는데, 경비지출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본인이 자진하여 장학 위원장을 맡으며 기금을 회사하기도 하였다.

2021년 43대 금영천 회장과 성기로 (약57)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나 COVID 19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송년회, 골프대회 등 대면 모임은 1년 동안은 불가능 했고 상임 이사회 등도 화상회의로 하면서 임시총회는 야외 피크닉 모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으나 지난 12월 3일에는 모처럼 3년만에 실내에서 송년회 겸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동창회 최대 관심사인 젊은 동문모임은 김병순 사무총장(사회82) 주도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도 쉬지 않았다.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대한민국 음악제 후원, 청소년 후원을 위한 아미제 앙상블 후원 등에 참여한바 있다. 앞으로 잔여 임기 6개월 동안에 후임 회장 책임자가 선정되어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현재와 같이 동창회와 골든클럽의 상호 협력을 더욱 두텁게 쌓아 가면서 시너지 효과로 양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동창회와 골든클럽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이준행 명예회장의 무한한 사랑과 후원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새해에도 회장님이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뉴욕동창회에서는 2021년 10월에 무연고로 사망한 한인의 장례식을 치루어주었다.



김병순 사무총장의 주도로 80 학번들의 활성화를 위한 2차 모임이 2022년 5월 21일에 가연에서 있었다.

노인들을 위한 영화 5편

■ 윤현남 (공대64)

늙음, 노인에 관한 영화는 별로 많이 없다. 우리는 노년은 일생 동안 보고 배워 도달한 정수인지 아니면 삶과 시간에 억눌려 기진한 것인지도 선택을 못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끝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늙음 또는 노인에 관한 소재의 영화를 시도하기 싫어한다. Spectacular한 성취도, 불타는 열정도, 영원한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통받는 모습, 건방진 노인 캐릭터도, 외계인의 힘을 빌려 젊음의 회복 등 모두 식상할 뿐이다.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내게는 삶속에서 만나는 성숙의 시련과 환난을 깊이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해 깊은 감동을 남겨주는 영화들이 몇 편 있다. 어느 것은 상식적인 재미가 없고, 쉽지 않지만 주는 감동은 내게는 평생 친구처럼 남아있는 영화 5편이다. 기회 있으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다.

Ikiru (1952) Dir. Akira Kurosawa



이 영화는 전에 일본 영화를 소개하면서 언급했듯이 20대 말 총각으로 post-doc 하던 때 우연히 본 것인데 큰 감동을 받아 살면서 최근까지 7-8번은 다시 본 것 같다. 나이가 60이 넘도록 아무런 목표도, drive도 없이 살아온 시청 관료

가 마지막 순간에 삶의 의미를 찾는 내용이다. 구로사와 감독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실력은 world-class가 아니라 역사상 최고인 것 같다. 오직 한 편의 영화를 권고하라면 내게는 이 영화이다.

간지 와타나베는 평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시청 관료이다.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한다. 가족과 대화도 안 되고, 소설가와 함께 밤새도록 같이 술 마시며 대화하지만 얻은 것이 없다. 다음으로는 사무실 여직원과 시간을 보내 보지만 젊은 활기를 찾지 못한다. 마침내 시청에서의 마지막 project로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결심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죽기 전에 성취한다.

On Golden Pond (1981) Dir. Mark Rydell



이 영화는 원래 1979년 Broadway의 연극이었는데 영화권을 영화배우 Jane Fonda가 아버지인 Henry Fonda를 마음에 두고 사서 만든 영화이다. 영화는 80이 넘는 괴팍한 은퇴교수 Norman과 부인 Ethel이 처음 결

혼한 때부터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던 Golden Pond에 왔고, 여름 한 달을 보내면서 죽기전에 사이가 석연했던 딸 Chelsea와 화합을 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로 76세의 Henry Fonda와 74세의 Kathrine Hepburn이 같이 Academy 상을 수상하였다. Henry Fonda는 수상 6개월 후 타계하였다. '죽기 전에 섭섭한 관계들은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가?'가 초점이다.

괴팍한 은퇴교수 Norman Thayer과 부인 Ethel은 신혼 때부터 가지고 온 Golden Pond로 또 돌아왔다. 이번 여름은 Ethel에게는 건강이 썩 좋지 않은 Norman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고, 사이가 좋지 않은 딸 Chelsea와의 관계를 호전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그녀와 약혼자는 유럽으로 여행가게 약속되었고 대신 약혼자의 아들을 몇 주 부모님께 맡기고 떠났다. Norman과 의붓 손자는 좋은 사이가 되었고 모두 여름을 행복하게 끝냈다. 하지만 마지막 이사집을 신는 동안 Norman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Away from Her (2006) Dir. Sarah Polley



Julie Christie는 1967년 대학 4학년때 Dr. Zhivago의 Lara로 본 뒤부터 내게 강한 image를 남겼다. 그 뒤로 영화에서 본격이 몇 없었다. 2006년에 NY Times에 평생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66세의 Julie Christie가 Away

from Her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곱게 나이든 선녀같다는 기사를 읽고 그 모습을 보려고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Nobel 문학상 수상자 Alice Monroe의 단편소설 "The Bear Comes over the Mountain"에 근거한 것으로 Sarah Polley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다. 일생을 같이 한 부부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야기이다. 피오나 (줄리 크리스티)는 그랜트(고든 핀센트)와 함께 영원처럼 느끼고 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병의 급격한 진척으로 보육원에 입원 된다. 결국 사랑하는 배우자는 완전히 잊고 돌아오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용서, 포용, 그리고 죽을 보다 더 아픈 작별을 다 받아드릴 수 있게 해준다.

시 (詩) (2016) 감독. 이창동

옛그제(1/19/2023)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윤정희가 ironic하게 치매의 후유증으로 타계하였다 한다.

미자는 한강을 끼고 있는 작은 도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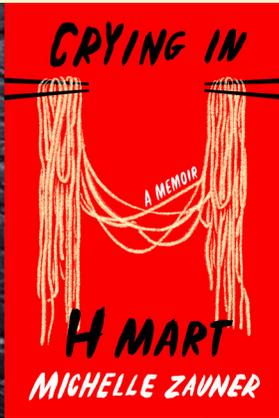
Crying in H mart.

■ 송혜순 (사대60)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근처의 Barns & Noble에 들린다. 오랜습관으로 이책 저책을 두리번 거리며 보고, 베스트 셀러 책을 사는 습관은 나의 오래된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몇주전에는 출간 첫날 영국에서 40만권이 팔렸다는 Prince Harry의 **Spare** 와 얼마전 여고 카톡 동기방에서 한 친구가 재미 있게 읽었다는 **Crying in H mart**을 사가지고 왔다.

Oregon 주의 Eugene 에서 자란 주인공 미셸은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한국엄마와 미국아빠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엄마와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한국말과 문화들을 배울 기회가 많았고, 할머니, 이모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 많은 갈등을 가졌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마치고, 재즈 음악가를 꿈꾸면서 살던 중 엄마의 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이모 또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엄마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Eugene으로 돌아와 엄마를 돌보다가, 엄마의 마지막 한국 여행을 위해 온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지만, 한국으로 가는동안 급격히 나빠진 엄마의 건강으로 가고 싶었던 제주도 방문 등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다시 힘들게 미국으로 돌아온다.

살 날이 얼마 남지않은 엄마를 위해 오랫동안 남자 친구로 있었던 피터와 결혼식도 올리지만, 결국 얼마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엄마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기 위해 아빠와 베트남 여행을 같이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더 많은 갈등으로 부딪치고 싸우게 되지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서로의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다짐을 한다. 그렇지만, H Mart에서 한국음식을 생각하며 울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와의 이별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위해 therapist



를 만나면서 많은 돈을 쓰던 중, 치료비로 쓰던 그 돈으로 한국음식, 김치 등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김치를 만들기 시작한다.

우연히 엄마를 그리면서 만든 음악이 자신이 소속된 재즈 그룹과 같이 히트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담은 "Love, Loss, Kimchi" 라는 타이틀의 에세이가 유명 매거진에 실리게 된다. 또한, 속해 있는 재즈 그룹이 전 세계를 방문 공연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공연을 하며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제 내가 자랑스럽나요?" 스스로 질문하는 주인공에게 콘서트에 온 이모부는 "네가 유명해져서 너희 엄마와 이모와 할머니가 너의 공연을 보면서 천국에서 화투치면서 소주 마시며 기뻐할 것이다."라며 같이 즐거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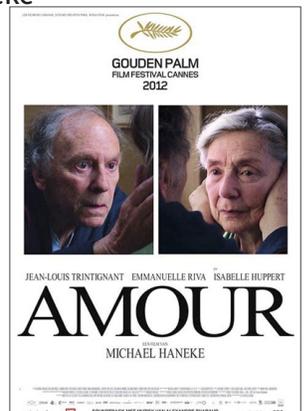
"I let the lyrics fly from my mouth always just a little bit behind, hoping my mother tongue would guide me". 라고 끝맺는다. 주인공이 결국은 아빠의 나라보다 한국과 한국음식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찾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예일대를 다닐 때, 숙제로 읽고 쓴 책의 독후감이 까다로운 교수의 추천으로 뉴욕 타임스의 북리뷰에도 실렸던 내 딸에게 "나랑 너랑 비슷한 이야기 같아서 이책을 샀어" 했더니, "아니, 하나도 같지 않은데 ..."라고 말해서 궁금했는데, 딸의 말대로 엄마인 나와 별 갈등이 없이 자란 딸이란 말인지, 결혼은 절대로 안할 것이 틀린다는 것인지 어쨌든 나의 딸과는 많은 점에 같지는 않아서 웃음이 나왔다.

한국 음식에 관해 쓴 미역국, 찹죽, 콩국수, 식혜, 냉면 등, 목욕탕의 때 미는 것, 똥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것 등 한국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재미있게 꾸며진 책이었다.

Amour (2012) Dir. Michael Haneke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누구보다 사랑했고,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이 처음에는 약간 방향 감각을 잃다가, 점차 당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된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논란이 된 Haneke 감독의 해답은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으로 이어졌다. 어느 영화도 이 영화보다 사랑의 상실을 직면하는 비탄과 공포를 더 잘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중학생인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66살의 할머니이다. 꽃 장식 모자부터 화사한 의상까지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은 엉뚱한 캐릭터다. 어느 날 동네 문화원에서 우연히 '시' 강좌를 수강하게 되며 난생 처음으로 시를 쓰게 된다. 시상을 찾기 위해 그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을 주시하며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는 예기치 못하게 초기 치매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16세인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16세 소녀를 성폭행했고 그 소녀를 투신자살로 밀어 넣었다. 손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애써서 자살한 피해자의 가족과의 합의금을 마련한다. 다음날 시 학원에 꽃 한다발과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를 남기고는 살아진다. 16세 소녀의 죽음을 66세의 생명으로 보상한다는 암시를 남기고...

회원 명단 (113명 / 2023-1-29)

| | | | | | |
|------|-----|------|-----|------|------|
| 강교숙 | 김병순 | 박희병 | 유무영 | 임창우 | 최학주 |
| 강에드 | 김상만 | 배상규 | 윤선구 | 임호순 | 주재욱 |
| 강영선 | 김승호 | 성기호 | 윤종숙 | 정도현 | 한영수 |
| 계동휘 | 김영덕 | 손갑수 | 윤현남 | 정수일 | 한영오 |
| 고애자 | 김영만 | 손경택 | 이강홍 | 조달훈/ | 한대진/ |
| 곽상준 | 김우영 | 손대홍/ | 이민제 | 조승자 | 안용희 |
| 곽선섭 | 김익성 | 남종현 | 이상무 | 정해민 | 허용웅 |
| 곽승용 | 김인형 | 손옥화 | 이준 | 조상근 | 허유선 |
| 구달희 | 김정필 | 송근숙 | 이대연 | 주상선 | 홍사만 |
| 권문웅 | 김종울 | 송웅길/ | 이대영 | 주상양 | 홍정표 |
| 권정덕/ | 김창수 | 송현자 | 이용대 | 진봉일 | 홍지복 |
| 홍선경 | 김치갑 | 송학린 | 이전구 | 천병수/ | 홍종만/ |
| 권영대 | 김태일 | 송혜순 | 이종대 | 천종화 | 홍예경 |
| 권태전 | 김한중 | 신진식 | 이종석 | 최구진 | |
| 금영천 | 김현중 | 신응남 | 이준행 | 최병우 | |
| 김광수 | 노용면 | 오순문 | 이준희 | 최수용 | |
| 김광현 | 민준기 | 오용호 | 이태호 | 최순재 | |
| 김동건 | 박기환 | 오유섭 | 이행순 | 최준희 | |
| 김문경 | 박상원 | 오인석 | 이흥빈 | 최진영 | |
| 김문언 | 박준구 | 우규환 | 임도혁 | 최철용 | |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9명 / \$900 / 2023-1-29)

강에드
강영선
권문웅
금영천
김상만
성기호
정수일
최수용
한용오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1-29)

| | | |
|-----|---------|------------------------------------|
| 1월 | 22~28일 |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
| 2월 | 9일(목) |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
| 4월 | 1일(토) |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
| | 20일(목) | Golf Outing -Sunset Valley |
| 5월 | 18일(목) |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
| | 25일 (목) | 여성회원 피크닉 |
| 6월 | 8일(목) |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
| | 15일(목) |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
| 7월 | 13일(목) | Golf Outing -Sunset Valley |
| 8월 | 10일(목) | Golf Outing |
| | 19일(토) |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80명 참가) |
| | 14일(목) |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
| | 19-30일 | 한국방문여행 |
| 10월 | 12일(목) |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unset Valley) |
| 11월 | 2일(목) | Golf Outing-Rockleigh Golf Club |
| 12월 | 9일(토) |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
| 1월 | 22-28일 |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
| 3월 | 30일(토) | 신년교례회 - KCC |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4명 / \$2000 / 2023-1-29)

강에드 200
금영천 300
성기호 500
최수용 10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3-1-29)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애자 (사대58) 최수용 (상대55)
권문웅 (미대61) 한영수 (의대61)
김익성 (상대53)
김정필 (공대71)
김창수 (약대64)
김현중 (공대63)
손옥화 (생과69)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